2016. 10. 20

보 도 자 료

매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공공택지과 공공택지개발팀
4	○	○	담당과장 : 정의돌(031-8008-2380) 담당팀장 : 추대운(031-8008-3240) 담 당 자 : 김수정(031-8008-3248)
			보도일시 : 배포 즉시

경기 서부 광명·시흥에 테크노밸리 조성 축구장 300개 규모

– 기술연구는 물론 제조, 물류, 주거기능까지 갖춰

<주요 내용>

○ 도, 광명시흥 일원, 205만7천㎡규모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 1조 7,524억 투입, 첨단R&D, 산업제조, 유통, 주거단지 함께 들어서

○ 2022년까지 약 2,200개 기업입주, 9만 6천여 개 일자리창출 기대

○ 판교, 일산에 이어 경기서부인 광명시흥에도 첨단단지 조성

오는 2022년까지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과 무지내동 등 3개 동 일원에 축구장 300여 개를 합친 규모의 대형 첨단단지가 조성된다.

경기도는 21일 오전 10시 30분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양기대 광명시장, 류호열 시흥부시장,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0일 밝혔다.

205만 7천㎡(62만 2천 평) 부지에 1조 7천 524억 원을 투입해 조성되는 가칭 광명시흥테크노밸리는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R&D단지와 이를 뒷받침할 산업제조단지, 물류유통단지, 주거단지까지 함께 들어설 예정이어서 수도권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단지가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으로 남부 판교테크노밸리와, 경기북부에 추진 중인 일산테크노밸리에 이어 서부권에도 첨단단지를 갖추게 된다.

www.sznet.com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에 대해 “광명시흥 지역은 국내 교통의 허브이자 대중국 전략 특구로 지리적 위치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오랜 규제와 국책사업 취소로 지역침체가 지속됐다.”며 “이제 이 지역은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 청년들이 모여드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으로 거듭나 경기도 리빌딩의 새로운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가 총괄지원, LH, 경기도시공사가 공동 조성

광명시흥테크노밸리는 경기도시공사가 개발을 맡은 첨단R&D단지(49만4천㎡)와 주거문화단지(28만6천㎡), LH가 개발을 맡은 일반산업단지(98만8천㎡)와 물류유통단지(28만9천㎡) 등 4개 구역으로 조성된다.

경기도는 2022년까지 광명시흥테크노밸리를 제조업과 정보통신산업이 융합된 제조업 혁신 R&D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친환경 자동차 연구단지와 레포츠 산업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미래형 유망산업은 물론 기계, 자동차 부품 등 지역기반산업 등이 유치 대상이다. 도는 또 광명시흥테크노밸리를 한·중 R&D 공동협력창구로 특화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배후단지인 주거문화단지는 주거와 일자리가 연계된 스마트시티 단지로 2023년까지 개발된다. 도는 휴식과 문화, 엔터테인먼트 등의 지원시설은 물론 단지 내에 트램(노면전차)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LH가 조성할 예정인 일반산업단지는 2022년까지 첨단R&D단지와 연계해 히든 챔피언을 발굴하는 강소기업 육성단지로 조성된다. 현재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 내에는 2,500여 개 중소 제조시설이 있는데 이 가운데 80%가 불법, 무허가 시설이다. LH는 이 기업들의 이전 편의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상 부지의 일부를 장기임대 산업시설용지와 아파트형 공장 등 입주유형을 다양화해 공급할 계획이다.

물류유통단지는 외곽순환도로 등 7개 고속도로와 KTX 광명역과 신안산선 등 3개 철도를 갖춘 광명·시흥지역의 교통 환경을 활용할 수 있어 성장이 기대된다. 경기도와 LH는 이곳에 중소업체 지원을 위한 공공물

www.gzone.com

류유통센터, 온라인 유통 위주의 물류시설, 고객 체험형 고품질 생활용품단지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2017년 12월 산업단지 승인, 9만 6천 개 일자리 창출 기대

첨단 R&D단지와 산업단지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17년 12월 사업승인, `22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도는 올해 말까지 타당성 검토와 경영투자심의 등 내부절차를 거친 후 `17년에 설계용역과 산업단지 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18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거단지와 물류유통단지는 '도시개발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구지정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절차가 추가돼 2019년 착공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으로 약 2,200개 기업 유치를 통한 96,497개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유발 3조 739억 원, 1조 82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사업예정지는?

광명시흥 공공택지지구는 지난 2010년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가운데 가장 큰 사업지구였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경기 침체와 LH의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2015년 4월 이곳을 공공주택지구에서 전면 해제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이곳에 첨단연구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2014년 서해안권 융복합 R&D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에 착수한 후 LH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후 도와 LH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2월 총 148만㎡ 규모의 공업용지 물량을 확보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완료했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는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조성되는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다.

이 과정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일반산업단지 조기착공을 위

www.gzonel.com

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했으며, 최근 이 지역에 대한 예타 면제가 확정돼 사업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됐다.

□ 판교, 일산이어 경기서부 광명시흥까지 3개 테크노밸리 보유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으로 경기도는 이미 조성된 판교테크노밸리와 최근 조성계획이 발표된 일산테크노밸리까지 모두 3곳의 테크노밸리를 보유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 2005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일대 66만 1,000㎡(약 20만평)에 사업비 5조 2,705억 원을 들여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해 국내 최고의 첨단단지로 육성한 경험이 있다.

또한, 도는 지난 6월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조성 예정부지로 고양시 일산을 선정했다. 일산 테크노밸리는 총 1조 6천억 원이 투자돼 고양시 일산구 일원에 약 50~80만㎡ 부지에 공유도시, 에너지자립형 친환경 도시,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통합관리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남경필 지사는 최근 인터뷰 등을 통해 “경기도 권역별로 미래 성장 거점을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년에는 경기북부지역 중북부권 가운데 테크노밸리 입지 여건이 가장 성숙한 곳 1개소를 선정해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도는 광명시흥테크로밸리에 대한 명칭공모를 통해 정식사업명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www.gtonel.com

가칭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계획 주요내용

1. 추진방향 : 수도권 서남부와 환황해권 대표 **융복합 첨단산업 핵심거점** 조성

구 분	광명시흥 TV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주거문화단지	비고
사업면적	494천㎡	988천㎡	289천㎡	286천㎡	
사 업 비	5,508억원	6,987억원	2,302억원	2,727억원	
시 행 자	경기도시공사	LH	LH	경기도시공사	

2. 그간의 성과 : 지난해 7월 발표후 T/F('15.8~)를 통해 **주요 행정규제 해소**

- ㅇ ('16.2월) **공업물량 확보**로 산업생산·기술개발·물류유통 집적된 단지조성
- ㅇ ('16.4월)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통한 **공동체계 구축 합의**
- ㅇ ('16.6월) **GB 해제**를 통한 개발가능지역 확보로 **입지 제약요인 해소**
- ㅇ ('16.8월) **지자체, 지역 국회의원** 사전 설명을 통한 **공감대 형성**
- ㅇ ('16.8월) **특별관리계획상 도시첨단산단 반영**으로 융복합 거점기반 마련
- ㅇ ('16.8월) LH 산업·유통단지 예타면제로 **무산위기 사업 실현 구체화**

3. 사업별 컨셉

- ㅇ (첨단R&D) 첨단기술개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R&D 전진기지**
- ㅇ (산업제조) 서부권 산업의 **Hidden Champion을 육성**하는 **강소기업 지원단지**
- ㅇ (물류유통) 낙후 물류·유통부문의 혁신적 도약을 위한 **스마트 단지**
- ㅇ (주거문화) **일과 삶이 함께**하는 **융복합 시티 조성**

4. 추진계획 : '17.12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 '22. 기업입주 시작

- ㅇ 경기도(경기도시공사) · LH공사 **206만㎡, 1조 7,524억원 공동투자**
- ㅇ 첨단산단+일반산단 **'17.12월 사업 승인 목표, '22. 기업입주 시작**
- ㅇ 배후주거+유통단지 **'18.10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23. 입주 시작**

5. 기대효과 : 경기도 서부축 차세대 新성장동력벨트로 육성

- ㅇ **경부축**(판교·광교)과 함께 **서부축**(고양~상암~광명·시흥)을 **양대 성장축**으로 **육성**
- ㅇ **약 1조7천억원 신규투자, 2,200여개 기업입주, 96천명 직접고용** 효과

www.gzone.com